

다니엘서 - 번호 199

정치적 쇠퇴와 예언적 운명: 성경적 예언의 맥락에서 본 민주당과 공화당의 종말

Jeff Pippenger
2024-05-03

우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사 속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종말을 밝혀내고 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공화당 뿔의 예언적 역사 속에서 서로 다투는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어 있다. 뿔은 권세의 상징이며, 두 뿔은 각각의 예언적 역사 속에 상호 간의 예언적 관계를 압축해 담은 축소판을 품고 있다. 공화당 뿔의 경우 그 축소판은 미국의 역사를 관통해 온 두 주요 정당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예언적 역사에서 두 권세로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된 소수의 왕국 가운데 하나이다. 두 권세로 표현된 성경 예언의 이전 모든 나라들은 미국을 예표한다. 메대-바사 제국, 프랑스(소돔과 애굽),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뉜 이스라엘은 모두 미국의 예언적 특성에 기여한다.

다니엘서 8장의 메대-바사 제국에는 두 뿔이 있었고, 마지막 뿔(바사)이 더 높이 솟아올랐다. 우리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먼저 역사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 요소를 확인했으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두 정당 가운데 마지막은 공화당이 될 것이다. 첫 공화당 대통령은 민주당의 찬노예제 입장에 대한 대응으로 역사에 등장했으며, 그 첫 공화당 대통령은 1863년에 노예해방선언을 선포했다. 그때는 미국 남북전쟁의 한가운데였고,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게는 반역의 해였다.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은 첫 공화당 대통령이 그 전형이므로, 마지막 대통령은 찬노예제 민주당과 그의 반노예제 공화당 사이의 내전 한가운데에서 역사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예제는 전 세계적 노예제이다. 첫 공화당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은 찬노예제 정당에 의해 암살될 것이며, 이는 트럼프가 도둑맞은 2020년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암살당했던 것과 같다. 1989년 종말의 때 이후 여섯 번째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 될 것이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글로벌리스트들을 뒤흔들 것이다. 따라서 그가 2015년에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을 때, 찬노예제 글로벌리스트들의 민주당과 반노예제 공화당 사이의 정치적 내전이 시작되었다.

요한계시록 11장이 성취되어 트럼프는 도둑맞은 2020년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암살당했고, 민주당은 2022년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거리에서 환호했다. 그러자 요한계시록 11장의 성취로 세계화주의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고 그들의 전쟁이 격화되었다. 메대-바사의 뿔의 증언은 마지막에 일어날 뿔(공화당)이 맨 나중에 올라와 더 높아질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이 민주당을 이길 것이다.

2024년의 선거는 민주당의 종말을 알린다. 일요일법이 땅의 짐승의 예언적 역사를 끝내기 전에 그들은 다시는 대통령 후보를 내세울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요일법 때 공화당도 또한 끝난다. 민주당은 2024년 선거로 끝나고, 공화당은

일요일법으로 끝난다.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종말인 일요일법은 1798년에 땅의 짐승이 시작된 것으로 예표되었다. 땅의 짐승의 주된 예언적 특징은 그 "말함"이다. 1798년에 미국은 Alien and Sedition Acts를 제정했는데, 그러므로 그것은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일요일법을 예표한다.

1776년부터 1798년까지, 미국은 아직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발언과 관련된 세 가지 이정표를 나타낸다. 그 기간은 성경 예언에서 여섯째 왕국으로서 땅의 짐승의 통치가 시작되도록 이끌었으며, 따라서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그 통치가 끝나게 되는 시점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또한 상징한다. 1776년의 독립선언, 1789년의 헌법, 1798년의 외국인 및 선동죄법은 일요일 법령에서 여섯째 왕국인 땅의 짐승이 종결에 이르게 되는 결말로 이어지는 역사 속의 세 가지 이정표를 나타낸다. 그 세 가지 이정표의 성취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2001년 애국자법은 미국 시민들의 자유가 박탈되기 시작한 출발점을 가리키며, 미국 역사 속 진정한 애국자들이 독립선언을 통해 발표했던 포고로 특징지어졌다. 애국자법이라는 이정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세 가지 이정표 가운데 첫 번째다.

민주당은 2024년 선거로 종말을 고하며, 이는 외국인 및 선동법으로 예고되었던 트럼프의 행정명령들의 출현을 알리게 된다. 그 뒤 트럼프가 발령하는 행정명령들은 일요일 법령은 아니지만, 용처럼 말하는 한 형태이다. 이는 트럼프가 그것들을 이용해 말세에 '적극적 전제정치'가 일어날 것이라는 화이트 자매의 지적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전제정치는 독재를 가리키는 말이며, 이는 외국인 및 선동법에서 전형화된 행정명령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트럼프가 자신의 행정명령들을 시행하면, 바이든의 실패한 대통령 임기를 특징지었던 펠로시 재판이 뒤집히게 될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종말을 가리키는 시기들은 알파와 오메가의 표징을 지니는데, 각 시기의 시작이 곧 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의 첫 번째 이정표는 2001년의 애국법이며, 두 번째 이정표는 2021년에 시작된 펠로시 재판이다. 그 재판은 1789년 헌법의 완전한 거부를 상징한다. 펠로시 재판은 민주당 연대표의 중간 이정표를 나타내며, 이는 1776년으로부터 13년 뒤 13개 식민지가 헌법을 비준했을 때로 상징되었다. 펠로시 재판은 헌법에 대한 반역을 나타내며, 1789년으로 상징되었다. 민주당 연대표의 세 번째 이정표는 그들이 정당으로서 끝나는 지점이다.

이것들은 2024년 선거에서 끝나며, 2025년 취임식이 거행되면 외국인 및 선동법으로 특징지어지는 행정명령들에 의해 2차 펠로시 재판이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세 번째 이정표는 1798년의 외국인 및 선동법이다. 민주당의 종말을 나타내는 시기는 선거, 취임식, 그리고 사탄적인 정치적 법률전의 도입으로 시작하여, 선거, 취임식, 그리고 사탄적인 정치적 법률전의 도입으로 끝난다.

공화당에게 첫 번째 이정표는 1776년의 독립선언서로 상징되는 2001년 애국자법이다. 두 번째 이정표는 민주당의 두 번째 이정표와 같지 않다. 민주당의 경우 1789년 헌법으로 대표되는 두 번째 이정표는 첫 번째 펠로시 재판이었다. 그러나 1789년 헌법으로 대표되는 공화당의 두 번째 이정표는 외국인 및 선동죄법이며, 이는 2025년에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이 거행되면 성취된다. 1798년의 외국인 및 선동죄법이 어떻게 1789년의 헌법을 대표할 수 있는가?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에서, 1798년의 '외국인 및 선동법'으로 특징지어지는 그의 행정명령들은 '펠로시 재판'의 두 번째 라운드를 촉발할 뿐만 아니라, 짐승의 형상의 형성도 개시한다.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기간은 용처럼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용처럼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 기간 초기에 있는 그 발언은 독재, 곧 화이트 자매가 '전제정치'라고 부르는 것으로 표현되는 왕권의 수립을 의미한다. 짐승의 형상 형성 기간의 끝에 나타나는 용과 같은 발언은 종교 권세의 권위가 정치 권세 위에 확립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독립선언서는 유럽의 왕들의 정치적 권위와 로마 교회의 종교적 권위, 양측의 폭정에 맞서는 선언이었다.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시기는 이 두 부패한 권세가 하나로 결합되는 때로서, 그 관계를 종교적 권위가 주도한다. 이 두 권세의 형성, 곧 결합에 있어서 마지막에 등장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종교적 권위다. 그러므로 그 시기의 시작은 그 시기의 끝을 상징한다. 1798년의 외국인 및 선동법은 민주당의 종말을 나타내며 그것이 그들의 세 번째 이정표이지만, 동시에 공화당 말기의 두 번째 이정표를 나타낸다. 공화당의 세 번째 이정표는 일요일 강제 시행이다.

민주당의 경우, 1776년, 1789년, 1798년으로 대표되는 세 가지 이정표는 각각 2001년(1776), 2021년의 첫 번째 펠로시 재판(1789), 2025년의 두 번째 펠로시 재판(1798)에 상응한다.

공화당의 경우 1776년, 1789년, 1798년으로 대표되는 세 가지 이정표는 2001년(1776), 2025년의 두 번째 펠로시 재판(1789), 그리고 일요일법(1798)을 예표한다.

1776, 1789, 1798은 22년을 나타내며, 22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한다. 이 세 이정표는 '진리'의 증거가 되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 이정표가 같은 진리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1776은 독립의 수립을, 1798은 독립의 상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들은 22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나타낸다. 열세 번째 글자는 반역의 상징이며, 첫째와 열셋째와 마지막이라는 그 세 글자를 합치면 '진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된다.

1776은 2001년 9월 11일을 상징하며, 14만 4천을 인치는 때의 시작을 알린다. 또한 늦은 비의 뿌림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데, 이는 베포 봉사에 대한 대가로 용이 짐승에게 넘겨지는 기간으로, 용의 민주당은 짐승의 공화당에게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참된 개신교의 뿔에 대한 인침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이라 불리며 일요일 법령 때에 기치로 높이 들려질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 두 번째로 손을 펴시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2020년 7월 18일에 참된 개신교의 뿔이 흩어졌고, 2001년으로부터 스물두 해가 지난 2023년 7월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의해 둘째 모으심의 일이 시작되었다. 첫째 모으심은 2001년에 있었는데,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져 내릴 때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내려왔다. 그 천사의 강림은 인침의 때의 시작을 나타냈고, 2020년 7월 18일 대천사 미가엘의 강림은 인침의 때의 끝을 나타냈다.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항상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시므로,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첫째 모으심의 예언적 요소들은 둘째 모으심에서 일어나는 예언적 요소들을 나타낸다.

14만 4천의 인치는 때의 마지막 역사를 나타내는 둘째 모으심의 분명한 예증이 세 가지 있다. 그것들은 곧 그리스도의 역사,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부터 1863년의 반역에 이르는 셋째 천사의 역사이다. 그 세 증인은 2023년 7월부터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14만 4천의 둘째 모으심을 확립한다. 각 역사에서 하나의 뚜렷한 요소를 분리해 보면, 셋째 화의 역할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1844년 8월 17일 엑서터 야영 집회가 마무리될 때,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그 선포는 14만 4천의 역사에서의 한밤중의 외침 기별의 선포를 대표하는 것이었으니, 두 역사 모두가 열 처녀의 비유의 성취였고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화이트 자매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개선 입성하신 사건이 1844년에 한밤중의 외침이 선포된 것을 대표한다고 지적한다. 그리스도께서 동물에 타신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단 한 번뿐이었고, 그가 타신 동물은 나귀였는데, 이는 이슬람의 상징이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두 번째 모으심의 기간에, 1848년에 화이트 자매는 유럽의 나라들이 분노하게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그 역사에서 나라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이슬람이 유럽에 가져온 지속적인 전쟁의 위협에 의해 이루어졌다. 두 번째 모으심에 관한 세 역사 각각에서, 셋째 화에 속한 이슬람의 역할이 확인된다.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때는 2001년 9월 11일, 셋째 화의 이슬람이 현대의 영화로운 땅인 미국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22년 뒤인 2023년 10월 7일, 셋째 화의 이슬람이 고대의 영화로운 땅을 기습 공격했다. 머지않아 올 일요일 법령, 곧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 때에, 셋째 화가 갑자기 다시 임하여 현대의 영화로운 땅에 또다시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자신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상징으로서의 문자적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반역과, 셋째 화의 이슬람의 세 차례 기습 공격은 '진리'의 표식을 지닌다.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그 기별은 하나님의 말세 백성을 두 번째로 모으는 사업을 성취하는데, 그 시기는 셋째 화의 이슬람의 활동이 진행 중인 기간이다.

'두 번째 모으심'으로 표현되는 예언적 기간은 '두 번째 모으심'의 전체 역사를 구성하는 특정한 예언적 기간들을 분명히 식별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의 강림은 십자가에서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는 그의 사역의 시작을 알린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마태복음 26:31.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가르치시는 40일의 기간을 시작하셨고, 그 뒤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한량없는 부어 주심에 앞서 10일간의 연합과 기도의 기간이 이어졌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일이 들어 있노라. 곧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지신 날까지라. 그가 또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여러 확실한 증거로 자기가 살아 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쭙어 이르되 주여, 이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함에 두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그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에 가득하더라. 사도행전 1:1-9, 2:1, 2.

사십 일 동안, 그리고 그 뒤이어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도록 되어 있던 열흘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두 번째로 모으셨다. 예루살렘에서의 대기 기간은 지체의 때를 상징하며, 마태복음 25장과 하박국 2장의 지체의 때와 부합한다. 그 전체 기간은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엘리야의 사역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로 끝났다. 세례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상징이므로, 그 전체 기간의 중간 이정표는 십자가였는데, 이는 그 전체 기간이 '진리'의 표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전체 기간은 요한이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신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기독교 성전의 기초가 될 제자들을 모으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 기간의 끝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두 번째로 모으시며, 그 둘째 모으심의 기간은 첫째 모으심의 기간의 반복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의 끝을 그 시작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세례로 십자가가 예표되어 있었고, 두 사건 모두 제자들을 모으는 사역을 시작하였다. 시작과 끝을 가리키는 이정표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한다. 부활 이후, 광야에서의 사십 일간의 시험은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의 사십 일간의 가르침을 상징하였다. 이 사십 일은 모두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표현하신 근본 진리를 나타낸다.

그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자들이 증언한 모든 것을 풀어 주시어, 그 기간이 그분의 예언의 말씀이 열리는 때임을 밝히셨다.

보라,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육십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말하며 의논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미련한 사람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 마음이 둔하도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게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셨다. 그들이 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더 멀리 가시려는 듯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붙들며 말하기를, "우리과 함께 머무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많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들과 함께 머무르려고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그가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누가복음 24:13-16, 26-31.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다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하셨다." 그들이 떡을 '떡'을 받았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 사십 일이 지난 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사십 일간의 가르침이 시작될 때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런 다음 그들은 오순절을 위한 열흘간의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는 곧 도래할 일요일 법령을 예표한다.

큰 지진, 곧 주일법의 때에, 이슬람의 셋째 화가 속히 임하며, 이슬람은 이사야의 "사나운" "동풍", 곧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침 동안에 붙들려 있는 요한의 네 바람에서 나오는 에스겔의 생기이다.

십사만 사천인이 인침을 받으면 네 바람이 풀려나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거세게 몰아치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온 집을 가득 채웠다." 셋째 화의 이슬람은 "갑자기" 그리고 예기치 않게 타격을 가하며, 일곱째 나팔인 "하늘로부터의 소리"를 내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완성되는지를 밝혀 준다. 그리고 신성(성령의 부어주심)이 인성과 영구적으로 결합될 때 십사만 사천인에게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며, 주님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제자들이 모여 있던 집)에 오셔서 십사만 사천인과 언약을 맺으신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가 산으로 올라와, 곧 그의 임재 앞에 더욱 직접적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 어느 때보다도 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게 될 위기 앞에 다가가고 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기름부음, 곧 그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거룩한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 유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것들을 깨닫도록 영혼의 죽어 있는 기능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과 진리를 향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려 할 때, 그는 그들에게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셨다. 그는 그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다. 이는 그들의 성공에 필수적이었다. 거룩한 기름부음이 하나님의 종들 위에 임해야 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온전히 인정되고 사도들과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던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다. 그들은 모든 이건을 내려놓았다.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한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에 힘썼다. 이는 그들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큰 위험의 때였다. 그들은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과 같았으나, 담대하였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그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러 나아가도록 그들을 능하게 하시는 특별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기다렸고, 각별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이 하늘의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바로 그 길이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날에 설 수 있도록 한 백성을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필요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맞을 백성을 준비시키는 엄숙한 사역에 참여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초대 제자들은 한마음이었다. 그들은 약속된 복이 어떻게 임할지에 관해 억측하거나 기이한 이론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들은 믿음과 심령에 있어 하나였다. 그들은 뜻을 같이했다.

모든 의심을 버리라. 두려움을 물리치고, 바울이 이렇게 외쳤던 것과 같은 경험을 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20.]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선을 이루는 힘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치게 하리라." Gospel Workers, 369-371.